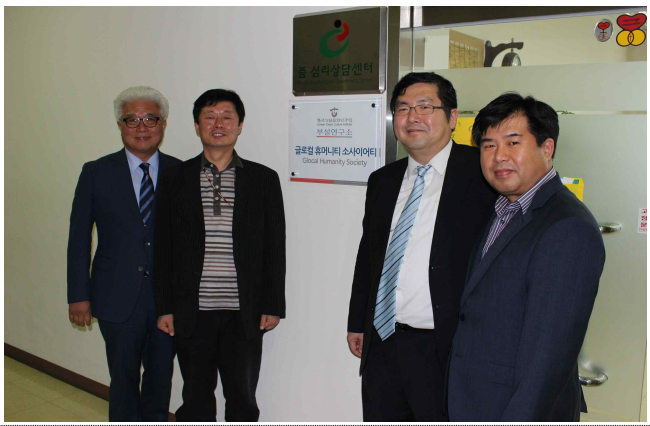
2015년 6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부설연구소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GHS) 개소식

: 지난 6월 6일 연구원 부설연구소 글로컬 휴머니티 소사이어티(이하 GHS)가 서울에서 첫발을 내딛는 뜻 깊은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GHS는 당면한 인문학 과제와 정책을 공론화하여 합리적인 인문학 육성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세계시민사회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여 인문학 과제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세계로 향하는 GHS의 원대한 포부에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6월 지역사 문화유산 자율답사 연기

: 6월 20일 ~ 21일로 예정된 연구원 지역사 문화유산 자율답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하여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차후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물러가기를 연구원도 한마음으로 빌겠습니다.

○ 40회 문화강좌 안내

: 2015년 두 번째 문화강좌가 6월의 끝자락에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문화적 욕구 갈증에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 날짜 : 2015년 06월 27일(토) 16시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사 : 박남준 시인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2015년]

○ 06월 08일(월) : 주간회의(11시)

○ 06월 10일(수) : 유타 주립대 토리 교수 특강(14시)

○ 06월 12일(금) : 법인 월례보고(10시)

■ 역사속의 오늘

○ 괴비행물체 독도 폭격 사건 - 1948. 6. 8

: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던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삼아 공중 폭격 연습을 실시하곤했다. 1947년 4월 16일 어민들에게 처음 목격된 이래(괴 비행물체가 어느 나라에서 소속이고 어디서 날아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채) 결국 1948년 6월 8일 사단이 나고 만다. 강원도와 울릉도에서 온 고깃배들이 독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독도로 접근을 하더니, 갑자기 독도 위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뒤이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박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며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격이었다. 배 위에 있던 이들은 바다로 뛰어들고, 독도 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어민들은 동굴로 급히 몸을 피하였다. 이곳 저곳에서 어민들이 무참히 죽어갔다.

미군 당국은 처음에는 미군기에 의한 폭격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의회에서 미군의 독도 폭격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고 폭격 당시 어민들이 미공군의 표식인 "원과 별"을 봤다는 증언이 드러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게 된다. 이에 미국은 미 공군 93 폭격비행대대가 벌인 독도 폭격 연습으로 임시 배치명령을 받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엄연히 한국의 땅인 독도에 어떤 경로를 통해 폭격 연습을 하게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나 향후 폭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추산에 따르면 14척의 배가 침몰하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은 저마다 달라서 사망자 수가 수백명 선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미 군정청은 사건에 대한 보상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짤막

하게 코멘트 한 후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미군 측에 보상을 받은 이들도 돼지 한 마리 값에 불과해 그 돈으로 위령제를 모시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다는 증언이다.

한국전쟁의 와중이던 1952년 11월 10일에서야 우리정부는 독도폭격사건의 자료제공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미국에 보냈고 20여일 후인 12월 4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독도가 미군 공군기의 폭격에서 해방된 날은 1953년 3월 19일이었다. (대구일보 2015. 02. 06 1948년 미공군 폭격연습 표적 "어민 150여명 무고한 희생" 기사참조)

○ 암태도의 영웅 서태석 나락을 쥐고 숨을 놓다 - 1943. 6. 12

: 독자들에게 '서태석'이라는 이름보다는 그가 주도했던 '암태도 소작쟁의'가 더 익숙할 수 있다. 1924년 전남 신안 암태도 소작쟁의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승리를 가져왔다.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가 시작된 후 그저 평범한 공무원으로 1915년까지 암태면장을 지냈던 그는 식민통치의 마각이 거세지자 공무원을 그만두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다. 1920년 목포에서 3.1운동 1주기 행사를 준비하던 중 체포되어 1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출감 후 소련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사회주의 사상과 만나게 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1923년 암태도에 '암태소작인회'를 결성하고 주민들에게 독립과 민족주의 사상을 보급하였다.

역사 연구자와 암태도 지역민들은 일제 하 한국농민운동의 기폭제였던 암태도 소작쟁의(1923~24)가 단순히 지주와 소작민의 생존권 다툼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항일운동이자 민족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서태석이라는 걸출한 운동가가 선봉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증언한다.

암태도 항쟁 이후 조선 전역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서태석은 1924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 결성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선출되었으나 9월 암태도소작쟁의 배후 조종자로 검거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27년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전진회(前進會)가 각 부문의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결성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서기가 되었으며, 같은해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뒤 9월에 조선농민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1927년 12월 춘경원당(春景園黨: 당시 서울의 무교동 한국요리점인 춘경원에서 결성되었다 하여 붙여진 명칭, 비정통파 조선공산당) 선전부장이 되었으나, 이듬해 4월 박형병, 이병의, 오상철, 홍기순, 김경태 등과 함께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제에 의해 체포와 고문, 투옥이 반복되며 심신이 상하여 급기야 정신분열증에 이르러 독립운동이 불가해지자 고향 암태도로 돌아왔다. 심신이 상할대로 상한 그였지만 일제에 의한 감시와 탄압은 계속되었고 고향사람들도 일제의 탄압이 두려워 그를 돌보지 못했다. 결국 고향이 아닌 압해도 논둑길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시신이 발견될 때 이십년 전 바닷길을 건너 목포까지 진출해 쟁투를 벌인 이유중 하나였던 농민들의 피땀으로 자란 벼 포기를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사후도 불행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일제하에서 사회주의 그룹의 독립운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비석 하나 세울 수 없었고 사후 60년이 지나 참여정부가 들어서서야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